

# 시골절 농사 짓고 도시절 장터 열고

**FTA? 사찰 중심 지역공동체가 대안**

농업시장 개방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농촌경제 위기의 단면에는 농촌에 위치한 사찰의 위기도 포함돼 있다. 사찰도 인드라망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역의 경제·생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찰의 혁신적인 변화는 물론, 도시에 위치한 사찰도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지역사찰과 도심사찰의 도농공동체를 시도하고 있는 남원 실상사(063-636-3031)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02-576-5886)의 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현미, 백미, 감자, 고구마, 꿀, 비비추나무, 산팽이나물, 산취나무, 오미자효소, 매실효소, 북분자효소, 매주공, 건포고비섯, 참깨, 참기름... 11월 5일, 서울 강남 봉은사 주차장에서 펼쳐지는 '가을한마당 귀농장터'에 올 가을 수확한 친환경농산물이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귀농장터'는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도농공동체운동을 벌이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인대표 도법)가 봉은사(02-511-6070)와 함께 2003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 수확물을 팔고 사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사찰과 도심사찰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대표적인 도농공동체 모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담겼다. 또한 장터에 나오는 농산물은 남원 실상사가 귀농인, 지역민과 함께 손잡고 형성한 공동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어서 의미는 더욱 크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체운동은 실상사와 인근 신내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체로부터 출발했다. 실상사는 소유하고 있던 땅 1만평과 불교사

상에 기반을 둔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 귀농학교, 인드라망생협,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영농조합 등이 도농공동체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영농조합은 지난해 국고보조금과 지역민이 출자해 설립, 조합원으로 지역민 50여가구가 참여하며 도농공동체운동에 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실상사에 모여 '나눔 수행 화합'의 모임을 열어 친목도모, 공동체의 방향과 역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실상사 스님들과 교류하면서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철학과 이론을 제공받는다.

실상사와 신내면 공동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봉은사, 서울 능인선원, 수원 포교당, 부천 석왕사, 대구 관오사 등 사찰 내 설치된 생협매장과 '친환경 공양미 율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사찰을 통해싼 가격으로 도시 불자들의 발상에 제공된다.

이로 인해 실상사를 구심점으로 한 도농공동체운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이 처음 시작된



## 절 유희부지 귀농인·지역민에 제공 공동체 형성 '1寺1공동체' 등 농산물 판로 개척 경제에 도움 농촌의 질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큰 효과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신내면 마을공동체에 정착한 귀농자는 244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민 자녀가 7명인데 반해 귀농가정의 자녀는 11명으로 지역민 자녀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장 큰 효과는 사찰이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지역의 경제·문화·교육 등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점이다.

사찰의 입장에서 도농공동체를 귀농인과 지역민들에게 내놓으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는 전국의 사찰이 갖고 있는 방대한 유희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상사의 시도는 향후 농촌지역 사찰이 나아가야 할 지역공동체의 모범적

인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평창 월정사, 구례 화엄사, 강화 선원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찰과 지역민이 결합된 영농법인도 사찰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심사찰에서도 1사(寺)1촌(村) 또는 1사1공동체가 결연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항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농촌사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유희부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의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경 기자 bypark@buddhanews.com

### 부다의 경제학 (19)

## 기업의 유토피아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는 말이 요즘 경제계에서는 화두이다. 아무 것도 거추장스러울 것이 없는 광활한 푸른 바다가 바로 블루 오션이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드 오션(red ocean)에서는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기가 무척 힘들다. 큰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 오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무를 벌여야 하는 경쟁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블루 오션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는 자유의 세계이다. 기업이란 개인이든 이러한 블루 오션에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강력히 부정하는 것이 이른바 속명론이다. 어떤 절대자가 존재해서,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속명론의 부정이야말로 불교가 탄생하게 된 궁극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연기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한다. 블루 오션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는 자유의 세계이다. 기업이란 개인이든 이러한 블루 오션에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 현실에 기반 두지 않는 계획은 실패의 지름길 연기법은 인간이 미래 개척 주체임을 일깨워 새로운 인연 설계하는 자만이 블루오션 만끽

는 생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끌고 가는 세상, 바로 블루 오션이야말로 모든 기업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들은 이미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거나 주목 들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우리 불교인들이 잘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이 모든 일이 다 업보(業報)니 어쩔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적 진리는 연기의 법칙이다. 연기의 진리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결과를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에 '악인악과 선인선과(惡因惡果 善因善果)'라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깊숙이 녹아들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그러나 오늘의 모든 힘든 일에는 내가, 우리가 예전에 지어놓은 악인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옳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불교가 가장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투명 가능한 미래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망상이고 미몽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계획은 사상 누각이며, 실패와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 자유의지는 현실의 제약을 풀고 도약할 수 있는 창의력과 창조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블루 오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과 과거 업의 울타리에 얽매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가능성의 싹을 스스로 자르지 않을만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연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연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다 시말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양식을 갖춘 사람과 기업만이 블루오션에서 대자연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부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실한 가르침이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

**불교다이어리**

2007년 불교다이어리는 매일매일 음력과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 가는 날(재일)이 표시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종단과 불교단체, 산하단체 등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권 이상 사찰 및 단체명을 인쇄할 경우 무료로 해드립니다.

가격: 7500원

##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신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짜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파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인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오마니반메홍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노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속자대명왕인연을 넣고 지갑내부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령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이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오마니반메홍지갑을 여성이 지님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법공을 드리어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